



양봉업의 미래는 농가에 나시지

한국양봉농협
조상균 조합장

대망의 2005년을 맞아 양봉인 모두의 건강과 제발 올해는 아카시아 꿀이 대풍을 맞이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지난해에는 아카시아 꿀이 예년의 10%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되었는데 이는 38년 만에 찾아온 아카시아꿀 흉작이라고는 하지만 38년 전에는 아카시아꿀이 지금처럼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고, 유채나 싸리가 60-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지금보다는 오히려 적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다.

이제 지난해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양봉인의 설자리가 없어질 형편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닌데 지난해 시련을 안겨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믿고 싶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면 더욱 높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지만 위기를 맞고도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 양봉업계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된다.

기후 탓 만이라면 좋은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중병에 걸려 있다. 노랑 혹 벌레와 황화현상으로 인하여 성목들이 집단고사하고 있다.

경남북지역은 50%이상이 죽었다고하며 충남북지역도 상당수가 죽었다. 올해는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도 많이 이러한 황화현상이 오리라 예상된다. 나머지 살아 남아있는 나무도 이러한 병에 감염이 전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중병에 걸렸지만 간신히 살아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 아카시나무 하나에 의존하는 양봉을 벗어나지 않고는 양봉이라는 직업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다. 이제 아카시아 외의 밀원을 심어서 새로운 밀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고사되는 원인을 찾아내어 죽어가는 아까시나무를 살려야 하겠다.

또한 전국의 양봉인들이 양봉업계를 떠나지 않으려면 다 같이 운동적 차원으로 밀원을 심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나서서 심어 주길 바라고 있고 본인을 비롯해 협회장도 정부에 강력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깊이 생각해보면 희망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초본류 목본류 가릴것이 없이 내 봉장 주위에 알맞은 가치가 높은 밀원부터 나 스스로 심어야 하겠다. 앞으로 휴경논이 많이 생길텐데 이곳에 유채나 스위트 크로버(전동싸리)와 방아와 물봉숭아나 자운영을 심는 것도 적극 펼쳐야 하겠다.

전국토의 64%가 임야로 되어 있고 이중 70%가 사유림이고 30%정도인 140만ha 정도가 국유림이다. 이중에 이미 60-70%는 수종 갱신이 되어 있다고 한다. 사유림은 산주가 원하지 않는 나무를 심을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돈 들여 수종 갱신한곳과 자연림이지만 숲이 울창한 곳을 베고서 밀원수 심어줄리 만무하다.

우리나라는 목재 자급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 95%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1년에 목재 수입액이 매년 6억불 정도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

산림의 첫째 목표가 목재가치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러나 밀원을 심어 달라고 해본들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목재가치도 있고 밀원도 되는 나무를 심어 달라고 농림부나 산림청에 떼서 보지만 심어준다고 해도 전국의 43000명의 양봉인의 욕구에 충족하기에는 너무 미비하리라 생각된다.

사유림을 가진 주인에게 밀원수 심어서 꿀 채취하면 몇할 정도는 주겠다고 약속하면 밀원수 심는 사람이 혹시 나올지 모르나 국가에서 산주 허락 없이 밀원수를 심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는데 밀원 심는데 양봉인들이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다.

하나는 내가 심어봤자 남들이 벌 가지고 오는 것을 걱정 하는데 한그루 심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면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 양봉인들이 나서서 심으면 똑같은 상황이고 설령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지면 이를 해결할 법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가지 내 땅이 없는데 어디다 심느냐고 반문하는데 설령 돈이 있다고 하여 산을 사더라도 아주 싼땅이 아니면 밀원심어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땅이 국가 소유이다. 대개 50년간 임대해주는데 양봉인이 남의 땅에 밀원수 심는 것은 이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다.

별이 날아다니므로 반경 5km안에 있는 땅은 등기만 없지 사용권은 양봉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곳이면 가로수 심을 공간부터 임야나 공원, 농가 주위나 휴경논 등 수없이 많다. 어느 곳이고 수만 그루의 밀원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제가 지난해부터 一千五拾萬 밀원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업양봉인 한 사람이 일년에 천그루 밀원을 심되 다섯종류 이상의 밀원을 향후 10년동안 만그루 심자는 운동이다. 일년에 보름씩만 밀원 심는데 투자하면 천 그루 심는 것은 충분하다. 일년에 내 직업을 위해서 보름도 투자 못한다면 양봉인으로써 살아남기 싫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DDA나 FTA등으로 우리의 시장은 점점 개방되어지고 있고 아까시나무 황화현상까지 맞고 있어 양봉인들의 밀원 심는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심을려고 해도 수유나무 등 원하는 묘목이 없게 되므로 묘목 생산은 씨앗 따다가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보고 길러 달라고 하던지 양묘업자와 계약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던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자재 지원되는 돈은 전부 밀원 지원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양봉업계는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조합에서는 2000년부터 밀원심기 10개년 선포식을 연 이후 씨앗을 매년 따다가 계약생산하여 계속 묘목이나 구근을 무상공급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십만그루 이상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비 회원들이 묘목구입을 희망하면 조합에서 양묘업자와 계약 생산하여 공급해 주려고도 하고 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양봉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데 특히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설령 욕을 먹더라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장작불을 붙일때 불이 붙이기가 어렵지 한번 붙이고 나면 잘 꺼지지 않고 잘 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양봉업계는 밀원심는 불을 붙이는 선도자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우리 다 같이 一千五拾萬 밀원심기 운동에 나서서 새롭게 양봉업계를 가꾸어 갑시다! 올해는 아카시꿀이 풍작이 되어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